

〈일반논문〉

구미학계의 수당사 서술과 한국사 인식*

정 병 준 **

〈목차〉

- I. 머리말
- II. 수당사 서술 형식과 주요 관심사
- III. 대외관계의 범주와 한국사 인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1978년에 清末 편이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약 40년이 경과한 2019년 六朝(220~589) 편이 출간되면서 사실상 완결되었다. 이 중 隋唐 편은 두 번째로 빠른 1979년에 출간되었지만, 오늘날까지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 적지 않다. 이는 수당사에 대한 당시 구미학계의 높은 관심과 관계가 있는데, 1973년에 출간된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당대사(唐代史)의 조명』(위진수당사학회 역, 아르케, 1999)의 서문에서는 그 이유와 관련하여 “증화제국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당대는 위대했던 시대 중의 하나이다. …… 이러한 엄청난 활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는 당 왕조의 절충주의로, 이것이 바로 당

* 본고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0년 12월 10일에 개최한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이전 400년의 혼란스런 역사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흐름들을 한데 끌어모은 방식이었다. 둘째는 당의 국제성, 즉 모든 종류의 외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었다”라고 한다.

한국 고대국가에 대한 구미학계의 인식은 “이러한 외국(즉 고구려, 백제, 일본) 지도자들의 굴복은 순전히 형식적이어서 직위를 받은 인물들조차도 종종 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군대들에 반대하였다. …… 한국은 여전히 명목상 중국의 국가체제를 모방한 당나라의 종속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신라와 발해는 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중국 문화권 안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귀속문제의 핵심을 책립(책봉)으로 보면서 고구려 등이 책립을 받은 것은 실질이 아닌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라고 한다.

□ 주제어

구미학계, 수당사, 한국사, 변진, 찰스 피터슨

I. 머리말

이 글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수당 편(이하 본서)¹⁾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학계의 수당사 및 대외관계사 서술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나아가 수당사 및 대외관계에 관한 구미학계와 중국 학계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또 이를 한국 학계의 입장에서 비평해 보려고 한다.

1) Denis Twitche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다만 본서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로 이른 1979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 후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여전히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 많고 그 상당수는 지금도 주류 학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990년에 본서는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四方漢學研究課題組 譯, 『劍橋中國隋唐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라는 이름으로 중국어로 번역·출판되었다. 그 「번역 前言」에는 본서의 주된 내용과 특징들이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본서의 기본적 서술 형식과 내용을 알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먼저 이것을 간략히 요약한 후 그 내용을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특히 대외관계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해 보려고 한다. 또한 「번역 前言」에는 책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정리에 이어 자신들의 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과 오류로 보인다는 점들을 지적해 두었는데, 그 안에는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본문에서 아울러 검토해 보겠다.

본서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7인의 연구자가 나누어 집필하였다. 즉 데니스 트위체트(제1장: 서언), 아서 라이트(제2장), 하워드 웨슬러(제3장, 제4장), 데니스 트위체트·하워드 웨슬러(제5장), 리차드 지소(제6장), 데니스 트위체트(제7장), 찰스 피터슨(제8장), 마이클 델비(제9장), 로버트 서머스(제10장)의 순서이다. 여기서 서언을 쓴 데니스 트위체트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공동편집자이기도 하지만, 본서에서 특히 주도적 역할이 느껴진다.

본서가 오래 전에 출간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후에 나온 성과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당대사(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원래 1973), ②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하

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너머북스, 2017(원래 2012), ③ 페어뱅크·라이샤워 저, 김한규 등 역,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1991(원래 1989), ④ 폴 로프 저, 강창훈 역,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유유, 2016(원래 2010) 등이다.²⁾

II. 수당사 서술 형식과 주요 관심사

앞에서 언급한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당대사의 조명』은 본서와 좋은 조합을 이루는 저작인데, 박한제가 쓴 「역자 해제」는 본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그 내용을 인용해 보자. 즉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1978년 清末 편이 가장 먼저 출판되었고 이듬해에 수당 편이 출판되었다. 이때 청말 편이 처음 출간된 것은 그들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로 인한 관심으로 이 시대 연구자가 비교적 많다는 구미권, 특히 미국의 중국사학계 나름의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수당 편이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색다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중국 근대사를 전공한 하버드 대학교의 페어뱅크 교수와 함께 당대 경제사를 전공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위체트 교수가 공동편집인으로 되어 있다. 트위체트 교수는 사상사를 전공하는 라이트, 제도사를 전공하는 폴리블랭크 교수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의 당대사학계를 주도해왔다. 이들 걸출한 3인의 학자가

2) 그 외에 존키 페어뱅크·멀 골드만 저, 김형종·신성곤 역, 『신중국사』, 까치, 2005;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 이동진·윤미경 역,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1; 발레리 한센 저, 신성곤 역, 『열린 제국: 중국 고대-1600』, 까치, 2005 등이 있다.

배출한 학자들이 각각 세계학계의 수준에 평행하는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에서의 당대사 연구는 여타 시대보다 질적 수준을 갖춘 분야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수당 편은 당초 파트 I과 II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이미 출판된 I에서는 정치사의 흐름과 그에 연관된 경제·사회·군사 및 대외관계를 주로 다루었고, II에서는 행정·경제·사회의 각 제도 그리고 사상 및 종교, 문화 일반을 다루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당대사의 조명』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II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당대사의 조명』은 II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공백을 충분히 메워 줄 수 있다고 한다.

또 박한제는 구미학계에서 중국사 가운데서 당대사 연구자를 비교적 많이 확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당대는 중국사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세계제국이라고 할 만한 점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하며 『당대사의 조명』의 서문에 적힌 다음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중화제국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당대는 위대했던 시대 중의 하나이다. 당대는 역사상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 제도적 발전, 사상과 종교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모든 예술 부문에서의 창조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다. 이러한 엄청난 활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는 당 왕조의 절충주의로, 이것이 바로 당이 이전 400년의 혼란스런 역사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흐름들을 한데 끌어모은 방식이었다. 둘째는 당의 국제성, 즉 모든 종류의 외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당 문명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인접한 주변민족들은 늘상 그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변형시킨 요인들을 당조로부터 수용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의 도처에서 사람들이 당으로 몰려들었다. …… 당의 수도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문명의 중심지였다.³⁾

이는 『당대사의 조명』의 집필자들이 중국사 가운데 당대를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케임브리지 중국사』 수당 편의 기본 시각이라고 해도 좋다. 즉 『당대사의 조명』의 서문을 작성한 사람은 데니스 트위체트와 아서 라이트지만, 두 사람 모두 『케임브리지 중국사』 수당 편의 핵심 집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시각은 근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을 보면 “당 왕조의 활력을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는 절충주의(앞선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문화적 전통들을 활용하는 능력)와 세계주의(외국인과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개방성)를 들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문화는 당 제국 전체에 걸쳐 지배적인 요소였고 특히 도시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였다”⁴⁾라고 하는데, 앞의 서문을 표현만 조금 바꾸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중국어 번역본의 「번역 前言」에서는 본서의 특색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수당사의 중요한 역사인물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견해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역사인물로 예컨대 수 양제에 대해 이전에는 폭군 등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책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또 당 덕종에 대해 이전에는 번진에 대해 소극적인 姑息政策을 펼쳤다고 하

3) 아서 라이트 · 데니스 트위체트 편, 『당대사의 조명』, 11~12쪽.

4)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의 6장 「외부 세계」, 328쪽. 또한 同, 293쪽에서는 개방성과 관련해서 “한 왕조는 발견, 탐험, 그리고 군사적 팽창의 시기였던 반면, 남북조의 왕조들은 반전의 시기로서 이민족이 대규모로 북부로 이주해 오고 외래 문화적 요소들 즉 무엇보다도 불교가 중국인의 삶을 변화시켰다. 수 왕조와 당 왕조는 외부 세계로 팽창하면서도 동시에 이민족과 그들의 문화들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양식 모두를 결합하였다. 즉 수 왕조와 당 왕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시기였다”라고도 한다. 이 문장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 羈縻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3, 2018, 40쪽 참조.

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책에서는 중앙권력을 보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번진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 등이다. 그 외에 당 고조, 당 고종, 무척천, 당 헌종, 이임보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역사적 사건인 안사의 난, 우이당쟁, 회창폐불, 大中復佛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는 수당사 연구의 미진한 부분이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① 기존에는 황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본서에서는 각 황제, 특히 태종, 무척천, 현종, 덕종, 헌종, 문종의 재상·대신과 그 외 중요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정치사의 내용을 크게 보완하였다. ②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인물의 성격이나 기질을 고찰하여 그들이 수행한 역사적 작용을 평가한 것이 적었는데, 본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비교적 많이 수행하였다고 하며 수 문제, 수 양제, 당 덕종, 당 헌종, 당 경종, 당 선종 등을 들고 있다. ③ 기존에 연구가 적었던 당 후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당 후기를 새롭고 명료하게 서술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 당 덕종 시기인 786년의 개혁, 당 헌종시기 裴瑄의 稅制 개혁, 오중윤의 건의에 따른 軍政制度 개혁, 9세기 중앙과 지방관계의 특징, 감군사 제도, 지방 民團의 건립과 군사화, 만당시기 권력의 새로운 구조, 朱溫의 降唐과 宣武軍 장악, 이극용의 활동을 들고 있다.

셋째는 수당사를 서술할 때 수당에 한정하지 않고 특히 한에서 송까지의 긴 시간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당시기의 전국통일을 논할 때 중국사의 분열과 통일의 역사들을 함께 언급하고, 안사의 난과 번진 할거를 논할 때도 분열과 통일의 추세라는 시각에서 서술하고 오대십국을 논할 때는 송대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즉 강남의 경제개발, 연해 무역의 발달, 新文人 계층의 동남 집중 등을 함께 서술한다는 것 등이다.

넷째는 사료비판을 철저히 행하고 또 각국의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섭렵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사료를 가볍게 채택하지 않고 원시 자료에 대한 감별을 중시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책의 논술이 견실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이전의 연구를 기초로 진행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책에서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및 중국의 관련성 과를 두루 섭렵한 점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본서의 세부 목차를 살펴보겠는데, 이것만 보아도 본서의 대체적인 내용과 주 관심사를 쉽게 알 수 있다. 제1장 「서언」에서는 (1) 수 왕조의 재통일 과정, (2) 여러 제도의 변화, (3) 경제와 사회의 변화, (4) 수당과 외부세계, (5) 사료 문제를 다루었다. 제2장 「수 왕조(581~617)」에서는 (1) 통일 직전 3세기의 중국, (2) 수 왕조를 개창한 文帝(581~604)와 그의 대신들, (3) 수대에 당면한 현안들, (4) 2대 煬帝(604~617)의 개성과 생활방식,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제3장 「당 왕조의 건국: 당 고조(618~626년)」에서는 (1) 건국 과정, (2) 당 왕조의 전국통일 과정, (3) 대내정책, (4) 당 왕조와 동돌궐의 관계, (5) 현무문의 변과 선양을 서술하였다. 제4장 「당 정권의 확립자 당 태종(626~649)」에서는 (1) 태종의 대신들, (2) 조정의 지역정치, (3) 국내정책과 개혁, (4) 중앙집권정책, (5) 대외관계, (6) 후계자 투쟁을 서술하였다. 제5장 「고종(649~683)과 무후: 계승자와 찬탈자」에서는 (1) 무후의 등장, (2) 무후의 집권, (3) 고종의 국내정책, (4) 대외관계를 서술하였다. 제6장 「무후와 중종·예종의 통치(684~712)」에서는 (1) 무후의 준비시기(684~690), (2) 주 왕조(690~705), (3) 중종과 예종(705~712), (4) 이 시기의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제7장 「현종(712~756)」에서는 (1) 현종 재위 초기(713~720): 姚崇과 宋璟, (2) 현종 중기(720~736), (3) 李林甫의 집권(736~752), (4) 양국충의 집권(752~756), (5) 현종 시기의 종결을 서술하였다. 제8장 「중당과 만당의 궁정과 지방」에서는 (1) 동북변경, (2) 덕종(779~805), (3) 9세기 초의 번진, (4) 현종(805~820)과 번진 문제, (5) 현종 계승자 치하의 번진, (6) 번진제의 쇠락을 서술하였다. 제9장 「만당의 궁정정

치」에서는 (1) 안록산의 난과 그 결과, (2) 內廷의 발전(786~805), (3) 헌종시대의 중앙집권 과정(805~820), (4) 9세기 중엽의 조정(820~859)을 서술하였다. 제10장 「당 왕조의 멸망」에서는 (1) 재정문제, 향촌의 피폐와 민중반란, (2) 懿宗(859~873년), (3) 僖宗(873~888), (4) 만당 시기 중국 권력의 새 구조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목차를 통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수당의 역사를 황제 별로 파악하면서 아울러 각각의 시대에 활동한 인물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 왕조에서는 문제와 대신들, 당 왕조에서는 태종과 신하들, 현종과 요승·송경 및 이임보·양국충의 집권에 관한 것 등은 그러한 면을 잘 드러낸다. 또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각 인물의 개성과 그 작용에 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둘째, 본문이 모두 아홉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 세 장이 당 후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다른 개설류와 비교하면 매우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⁵⁾ 특히 본서가 출간된 시기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⁶⁾ 셋째, 당 후기 서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번진에 관한 관심이다. 즉 제8장은 모두가 번진에 관한 내용이고, 제9장의 (1), (3)과 제10장의 (4) 등도 번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번진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본 때문일 것이다.

당 후기에 대한 구미학계의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비교적 근래에 출간된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의 「들어가는 말」에 보이는 다음 문장이다. 즉

-
- 5) 중국·일본 등 각국에서 나온 대부분의 개설류에서 전한에 비해 후한에 대한 서술이 간략하듯이 당 후기에 대한 서술은 당 전기에 비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 6) 이른 시기에 저술된 작끄 제르네 저, 이동운 역, 『동양사통론』, 법문사, 1985; 볼프람 에베하르트 저, 최효선 역, 『중국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 등을 보면 당 후기가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역사학자들, 특히 서구의 학자들은 당대 후반기가 전반기보다도 여러 면에서 더욱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756년 안녹산의 반란으로 뚜렷해지는 역사적 단절은 왕조의 성쇠 면에서나 중국의 역사 전개와 전체 궤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일본의 역사학자 나이토 도라지로(内藤虎次郎)는 8세기 중반에 시작되는 당에서 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변혁의 시기는 중국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을 특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의 시대 구분을 중국 역사에 대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나이토 이후의 상당수의 학자들은 그의 핵심적인 가설을 확인해 주었다. 안녹산의 반란 이후 당 왕조는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제도들을 폐기하고, 제국의 문화적 지형을 재구성하였으며, 외부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새로운 예술 형식은 모두 후기 중화 제국을 그 이전 시대와 구분지어 주는 기본적인 특징이었다.⁷⁾

라고 하고, 이어 「들어가는 말」(모두 6쪽)의 2/3 이상을 할애하여 당 후기에 나타나는 역사적 이행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기원후 220년 한 왕조가 멸망한 시점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제도들이 폐기되었다는 점이다. 즉 균전제와 이에 따른 조세제도, 부병제도 등의 군사체제, 교역을 시장에만 한정하는 통제정책 등이 상업화·도시화에 의해 붕괴되고 후기 중화제국 모델로 변화하였다. 다만 최상위 대가문들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10세기 후반 당 왕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고 한다. 둘째는 당대 후반기를 그에 앞선 시대와 구분 짓는 새로운 문화지형의 등장이다. 즉 한 왕조의 멸망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강남 하류 및 그 남쪽 지역이 개발되어 제국의 경제 중

7)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18~19쪽. 이 책은 전문적 연구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구미학계의 일반적 인식을 잘 서술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심지이자 국가 재정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전략적인 이유로 북부에 있던 수도의 통제를 받은 남부라는 전형적인 형태는 당말 이후의 중화제국 시기 내내 유지되었다고 한다. 셋째는 상인들이 외부 세계와의 교역관계를 재편하였다는 것이다. 즉 육상 실크로드를 대신하여 해상교역이 발전하여 이전의 몇 세기 동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역은 한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해안 지역들과도 새로운 상업 교역을 맺음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과 연결시켰으며 이러한 패턴은 명대에 국가 후원의 해상 원정이 중단됨에도 후기 중화 제국 전체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한다. 넷째는 증가하는 교역과 도시의 상업화에 따른 새로운 문학 장르의 등장이라는 것이다. 당 전반기에 완성된 서정적인 운문의 형식이 장안을 벗어나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운문이 생겨나고 사회비판적인 산문 등이 발전한다고 한다.

당 후기에 대한 구미학계의 관심은 당의 세계제국적 측면보다도 중국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당 후기의 역사적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말한다. 본문의 서술은 당 전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당 후기의 변화를 전제로 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대외관계의 범주와 한국사 인식

앞에서 본 세부 목차를 통해서도 본서에서 다루는 대외관계의 서술 방식과 비중을 알 수 있다. 즉 제1장에서는 (4) 수당과 외부세계, 제2장에서는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 안에 '중국 세력의 지속적 팽창'이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138~147쪽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제3

장에서는 (4) 당 왕조와 동돌궐의 관계, 제4장에서는 (5) 대외관계, 제5장에서는 (4) 대외관계, 제7장에서는 (3) 이임보의 집권(736~752) 안에 '대외관계(720~755)'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430~447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또 제8장에서는 (1) 동북변경, 제9장에서는 (2) 內廷의 발전(786~805) 안에 '8세기 후반의 대외관계'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607~611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4) 9세기 증엽의 조정(820~859) 안에 '9세기 초기와 증엽의 대외관계'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676~681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에서 대외관계를 설정하여 시기별로 국제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사의 조명』의 서문에 적힌 대로 당의 국제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술 형식은 기본적으로 앞 부분에 전체적 개략을 적고 이어 국가별(혹은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전개과정을 적은 뒤 마지막에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각 시기별로 서술된 국가 혹은 지역(민족)들의 명칭을 검토해 보자.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는 한대 이래 전개된 사방에 걸친 여러 가지 나라들과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개괄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나라로는 베트남, 한반도 각국, 일본, 南詔, 突厥과 回紇, 契丹, 吐蕃, 大食(이슬람)이 있다. 제2장 (3) 隋代에 직면한 큰 문제 안에 '변경 방어와 영토확장'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수 문제 시기 돌궐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 안의 '중국 세력의 지속적 팽창'에서 流求, 日本, 吐谷渾, 돌궐, 고구려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3장 (4) 당 왕조와 동돌궐의 관계에서는 제목 그대로 동돌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4장 (5) 중앙권력 강화 정책 안의 '대외관계'에서는 동·서돌궐,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토욕혼과 토번, 薛延陀, 고구려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5장 (4) 대외관계에서는 서돌궐, 한반도, 토번, 동돌궐의 부흥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7장 (3) 이임보의 집권(736~752) 안의 '대외관계(720~755)'에서는 토번, 중앙아시아

아·突騎施와 아랍인, 동돌궐의 쇠락과 回紇의 흥기, 거란과奚, 발해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8장 (1) 동북변경에서는 동북 변경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제9장 (2) 內廷의 발전(786~805) 안에 '8세기 후반의 대외관계'에서는 토번, 회흘, 남조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제9장 (4) 9세기 중엽의 조정(820~859) 안에 '9세기 초기와 중엽의 대외관계'에서도 토번, 回鶻, 남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당시대의 유구, 일본, 토욕혼, 돌궐, 고구려, 회흘, 거란, 발해, 남조 등은 모두 국제관계에 속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언급한 나라들 가운데 베트남만은 당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581년 중국이 마주한 이웃 나라 가운데 고구려만이 정착인구가 있고 안정적이며 조직이 잘 갖추어졌고, 다른 나라들은 유목민 등으로 모두 중국보다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이나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번역 前言」에서는 중국 학계의 입장에서 본서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며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즉 ① 農民起義를 반란이라고 하는 것, ② 토번과 발해 등이 일본·신라와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③ 역사적 사실이나 지명 등에 오류들이 보인다는 점, ④ 마땅히 서술되어야 하는데 서술되지 않은 것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②의 토번과 발해에 대해서는 중국 역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동북공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두 나라는 중국사의 범주로 간주되었음을 말한다. 하지만 「번역 前言」에서도 언급하듯이 본서에서는 두 나라를 일본이나 신라와 마찬가지로 위상을 가진 국가로 다루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먼저 토번에 대한 서술 방식을 보면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7세기에 토번이 갑자기 강력한 통일왕국으로 성장하여 도전적인 팽창을 시작하였다. …… 당 고종 때는 토번이 오늘날의 靑海 지역에 있었던 토욕혼을 멸망시켰다. 이전에는 이 토욕혼 왕조가 감숙에 있었던 중국영토와 토번과의 완충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이후 티벳이 끊임없이 甘肅 회랑지대와 蘭州 주변 지역 등에서 중국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당왕조는 거대한 상주군대를 이곳에 주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755년 이후 안록산 난으로 정부가 수도 방어를 위해서 이 주둔군을 철수시켰을 때 토번은 감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763년부터 840년대까지 점령하였다(35~36쪽).

라고 하고, 제4장 (5)의 ‘대외관계’에서는 “당 고조 때 토번은 이미 중국 북서쪽 국경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 토번은 9세기 중엽까지 중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발전하였다”(229~230쪽)라고 하고, 제5장 (4) 대외관계에서는 “고종은 660년대와 670년대에 한국에서의 군사문제에 주력하면서 날로 늘어나는 토번의 위협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 결과 서부 변경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났다. 660년 토번은 토욕혼을 공격하였다. 663년 그들은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토욕혼 사람들을 청해호 주변의 고향 땅에서 쫓아냈다. 토욕혼 국왕은 절망 속에서 중국인에게 원조를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고종은 토번과 당 영토 사이의 유일한 완충국이었던 토욕혼이 무너질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토욕혼이 정복당하면서 토번은 접경지역인 甘肅 지방과 타림 분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285쪽)라고 한다.⁸⁾ 이러한 서술에서는 토번이

8) 또 제7장 (3)의 ‘대외관계(720~755)’에서 “714년 당이 패한 후 토번은 꾸준히 그들의 왕국을 굳건히 하였다. …… 730년 협정이 맺어져 토번왕은 당의 종주권을 승인하고 토번 변경지역 장수들에게는 중국영토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도록 명령이 내려졌고, 협약 내용을 담은 비석이 국경에 세워졌다. …… 그러면서 당은 동북의 거란과의 지속적인 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736년 파괴되었다. 토번이 다시 길기트(小勃律)를 공격하였고 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

다른 독립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발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1장 (4) 수당과 외부 세계에서

당 고종은 마침내 고구려 정복에 성공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한반도의 대부분을 중국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당 군대가 철수하면서 신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였고, 만주 및 연해주의 옛 고구려의 영토에는 다른 강력한 국가인 발해가 들어섰다. …… 베트남과 달리 신라와 발해는 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중국 문화권 안에 편입되었다(32쪽).

라고 한 후, 제7장 (3)의 '대외관계(720~755)'에서 “당에 대한 독립의 상징으로서 발해왕은 그 자신의 연호를 채택하고 당의 正朔을 포기하였다. …… 현종은 강력한 발해의 굴기에 위협을 느낀 신라왕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당 군대가 營州로부터, 또 신라군이 한반도 북부에서 협공을 준비하였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733년 중국인은 거란과 다시 분쟁이 생겨서 전쟁을 포기하였다. …… 발해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大欽茂가 즉위하였다. 그가 즉위한 57년 동안 발해의 국력은 최고를 자랑했고 높은 문화수준에 도달하였다. 그의 통치하에 발해는 당의 제도와 문화를 모방하여 신라와 일본만큼 발달하였다. 발해는 동부지방에서 중국 문화권의 일부가 되었다. …… 신라와 일본처럼 발해도 완전히 독립국이어서 당이 그 내정에 간섭할 수 없었지만, 조공관계의 형태는 조심스럽게 유지되었다. …… 당 조는 그들과 일종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였다. 이전 어느 이웃나라와 지낼 때보다 훨씬 동등한 관계와 더욱 공동의 문화를 가진 것을 인정해야

현종이 새 화약에 동의하지 않자 토번은 741년 여름 과감하게 침공하기 시작하여 다시 청해호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철통 같은 石堡城을 탈환하고 甘肅 변경의 당 영토까지 침공하였다”(430~432쪽)라고 하는 것 등이 보인다.

하였다”(441~443쪽)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발해가 “독립의 상징으로서 발해왕은 그 자신의 연호를 채택하고”, “신라와 일본처럼 발해도 완전히 독립국”, “훨씬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즉 발해는 신라·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였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본서에서 한반도 국가들을 어떻게 서술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번역 前言」에서 토번과 발해가 일본·신라와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본서에서 신라 등을 독립국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겠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북공정’ 이후에 문제가 된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다. 앞에서 본서가 고구려의 국가적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 등을 언급하였다, 그 외의 내용을 보면 제4장 (5)의 ‘대외관계’에서

수양제는 세 번이나 한반도의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제국이 멸망하였다.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 중국에서 당이 새로 건국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진 고구려에서의 이러한 세력교체는 두 나라가 친선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619년 고구려는 다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충실하게 당에 공물을 보냈다. …… 당의 이익은 한반도의 분열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위험이 있었고 동부 만주의 말갈이나 일본과 동맹할 가능성도 있었다. …… 두 달 동안 안시성을 점령하려는 무모한 시도 끝에 태종은 혹독한 겨울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들의 귀환 행군에서 당의 군대는 혹독한 폭설을 만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 …… 연개소문은 더 무례해졌다. …… 648년 6월 태종은 이듬해에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태종의 오랜 벗이며 참모이자 최고 대신인 방현령이 죽기 직전에 국력을 소모하고 명분이 없는 공

격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간청마저도 무시되었다. ……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태종 자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아시아에서 날로 성장하는 당의 힘을 약화시키지 못했다(231~234쪽).

라고 하고,⁹⁾ 또 제5장 (4) 대외관계에서

태종은 649년의 대전투가 고구려에 대한 최종 정복전쟁이 되길 바랐으나 죽음에 임해 직접 이 공격을 취소하였다. 이는 오히려 고구려의 독재자 연개소문의 야심을 자극하였다. …… 고종은 앞선 군주들이 갖지 못한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첫째,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방어선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둘째, 바다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백제를 당 군대가 점령함으로써 고구려의 심장부를 신속하게 타격하고 제2의 전선을 개척할 수 있었다. …… 678년 고종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설득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토번 방어가 한반도보다 더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에 신라는 백제 전 지역과 고구려 남부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당은 본국과 가까운 더욱 심각한 군사 업무에 주의를 기울였다. 대량의 병력이 서방의 토번에 대한 전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군대를 한반도로 보내 예전 동맹국의 침략적 확

9) 수대의 관계에 관해서는 제2장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 안에 ‘중국 세력의 지속적 팽창’에서 “돌궐의 處羅와 그의 기병들은 수 양제의 고구려 첫 원정에 따라가 그 공적에 대해 많은 하사품을 받았다. …… 배구는 양제에게 고구려 사자를 귀국시켜 고구려왕이 수로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돌궐을 이끌고 징벌할 것이라고 명하게 하였다. …… 고구려왕은 그 명을 거부하였다. 중국의 권위가 손상되어 수는 언젠가 대군을 동원하여 이 무도한 나라를 토벌해야 했다. …… 배구는 견문이 넓었지만 그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한 그 지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배구의 계획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동돌궐의 용병을 사용할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었다. …… 고구려가 遼河 서쪽을 침공한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 598년 수 문제가 수록 공격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고구려는 이때 군사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다”(140~143쪽)라고 한다.

장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한반도를 점령하고 통치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다 (282~285쪽).

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본서에서는 토번, 발해, 고구려를 중국사의 범주로 보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인식은 구미학계의 다른 여러 저서에도 보이지만, 여기서는 ‘동북공정’ 이후에 나온 저서를 살펴보자. 즉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의 6장 「외부 세계」를 보면

티베트의 성장은 신강 지역을 둘러싼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외교적, 군사적 분쟁을 촉발시켰다. …… 이러한 외국(즉 고구려, 백제, 일본) 지도자들의 굴복은 순전히 형식적이어서 직위를 받은 인물들조차도 종종 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군대들에 반대하였다. …… 당나라는 티베트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에 집중하여 더 이상 한반도의 정복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명목상 중국의 국가체제를 모방한 당나라의 종속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다. …… 신라의 한반도 통일은 당나라의 한반도 병합의 의도를 증식시켰고, 동북 지역에서의 거란의 성장은 돌궐의 쇠퇴 이후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재현하였다. ……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서쪽에서 발생하였다. 성장하는 세력이었던 티베트는 630년대에 당나라와 이름뿐인 동맹을 제한하였고 북부와 서부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었다. …… 티베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 조정은 서부 지역으로 군사를 배치하고 서돌궐을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카슈미르, 갠지스 강 유역 그리고 오늘날 아프카니스탄 일부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라고 하는데,¹⁰⁾ 다만 이 책에서 발해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면 구미학계에서는 ‘동북공정’ 이후에도 본서를 계승하여 토번과 고구려

를 중국사의 범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IV. 맺음말

머리말에서 본서는 아직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 많다고 하면서도 본문에서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여기서 간략히 언급해 보겠다. II장에서 본서의 특징 가운데 당 후기에 관한 서술이 다른 개설류에 비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변진에 대한 서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지금 무엇보다도 변진을 언급하는 것은 나의 주된 연구 분야이기도 하여 다른 부분에 비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나는 장기간 변진을 연구해 오면서도 구미학계의 성과를 소홀히 다루었는데, 아직 음미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었다.¹¹⁾ 박한제가 언급한 대로 구미에서 당대사 연구가 여타 시대보다 질적 수준을 갖추었던 점이 지금껏 가치를 지니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변진 이외의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한다.

10)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296쪽, 309쪽, 310쪽, 315쪽.

11) 관련 연구를 언급한 것으로는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491~492쪽; 同,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중국고중세사연구』 58, 2020, 219~220쪽; 同,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吳少誠의 태도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69, 2020, 377쪽 등이 있다. 이외에 양세법의 시행에는 변진 권력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일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상호 타협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고(499쪽), 또 사왕의 난 이후에도 덕종은 연약하고 겁 많은 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511쪽) 등의 여러 견해들은 새롭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장에서 발해와 고구려 등의 역사적 귀속문제에 대한 구미학계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생각해 보자. 즉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에서 “이러한 외국(즉 고구려, 백제, 일본) 지도자들의 굴복은 순전히 형식적이어서 직위를 받은 인물들조차도 종종 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군대들에 반대하였다. …… 한국은 여전히 명목상 중국의 국가체제를 모방한 당나라의 종속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속 여부의 핵심을 책립(책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¹²⁾ 그리고 고구려 등이 책립을 받은 것은 종속적이지만, 그것은 실질이 아닌 순전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본서에서 “신라와 발해는 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중국 문화권 안에 편입되었다”(앞의 Ⅲ장)라고 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는 한국학계의 견해와 동일한 것이다. 즉 중국 학계에서는 걸핏하면 책립이 실질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보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형식적 또는 명분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2021.03.26. 투고 / 2021.04.07. 심사완료 / 2021.04.09. 게재확정)

12) 이는 중국학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즉 정병준,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이론(藩屬理論)과 고구려 귀속문제」, 『고구려연구』 29, 2007, 88쪽, 106~107쪽 등 참조.

13) 이는 구미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용태,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86쪽에서도 “미국학계에서는 …… 고구려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중국의 기도를 비판하고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이며 한국사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 저술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은 실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그것도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전체라더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들끓었던 적이 있는데, 구미학계의 일반 견해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Historiography on Sui-Tang and Korean History in
the Western Academia**

Cheong, Byung-jun

The perception of the Western academia on the status of ancient Korean states(Koguryo, Shilla, Paekche, Balhae) is as follows. “While the submission of these foreign rulers was purely formal and those who received titles would often actively combat Chinese influence and armies, the language and practices of statecraft in East Asia derived from the Chinese model”, … “Korea remained a nominal Tang vassal institutionally modeled on the Chinese state”. That is, Korean state’s reception of titles from Chinese state was not substantial but formal and nominal practice, so this shows that Korea remained independently at that time.

□ Keyword

Western Academia, Sui and Tang, Korean History, Provinces, Charles A. Peterson

[참고문헌]

- Denis Twitche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四方漢學研究課題組 譯, 『劍橋中國隋唐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너머북스, 2017(원래 2012).
- 발레리 한센 저, 신성곤 역, 『열린 제국: 중국 고대-1600』, 까치, 2005(원래 2000).
- 볼프람 에베하르트 저, 최효선 역, 『중국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원래 1948).
-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당대사(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원래 1973).
- 작끄 제르네 저, 이동윤 역, 『동양사통론』, 법문사, 1985(원래 1972).
- 존킹 페어뱅크·멀 골드만 저, 김형중·신성곤 역, 『신중국사』, 까치, 2005(원래 1992).
-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 이동진·윤미경 역,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1(원래 1994).
- 페어뱅크·라이샤워 저, 김한규 등 역,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1991(원래 1989).
- 폴 로프 저, 강창훈 역,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유유, 2016(원래 2010).
- 유용태,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정병준, 「중화인민공화국의 변속이론(藩屬理論)과 고구려 귀속문제」, 『고구려연구』 29, 2007.
- 정병준, 「唐代 異民族 管理方式의 다양성 및 그 변용 - 羈縻府州 제도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3, 2018.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平盧節度使 李納의 兩面性」,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중국고중세사연구』 58, 2020.

정병준,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吳少誠의 태도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69, 2020.

